

포기를 모르는 당신이 ‘챔피언’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금남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男 김수용씨, 2년만의 1위 탈환

女 이정숙씨, 5연패 기염

주성남씨, 100번째 풀코스 완주

■ 각 부문별 입상자

풀 남자			
순위	배번	이름	기록
1	252	김수용	02:32:31.64
2	254	김승환	02:34:32.55
3	310	심재덕	02:39:22.05

풀 여자			
순위	배번	이름	기록
1	419	이정숙	02:57:05.22
2	394	김정옥	03:09:43.52
3	416	문선미	03:26:08.31

하프 남자			
순위	배번	이름	기록
1	1421	김보건	01:12:28.13
2	1586	이재식	01:13:14.01
3	1506	박창하	01:14:32.93

하프 여자			
순위	배번	이름	기록
1	4177	류승화	01:24:27.05
2	4216	정순자	01:25:34.71
3	4195	정기영	01:29:27.35

‘전통의 강호’들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50번째 우승 질주를 선보였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 50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상무시민공원 등 광주 도심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과 풀코스 두 부문으로 나눠 치러지면서 전문성을 더했다.

3·1절 마라톤 대회와 인연 많은 이들의 우승 질주였다. 이정숙(50·천안)씨가 2시간57분5초에 결승 타이틀을 끊으면서 여자 풀코스 5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이씨에게는 3·1 마라톤에서 작성한 7번째 우승이다. 그는 처음 3·1 마라톤 대회 도전장을 내밀었던 2008년 하프 코스 정상을 밟으며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뒤, 2009년 하프코스 2연패에 성공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풀코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여자부 지존이 됐다.

3연패를 노렸으나 지난해 어렵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김수용(39·대전)씨는 2시간32분31초에 질주를 끝내며 우승 트로피를 되찾았다.

김씨는 쾌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예약했다. 자신의 최고기록보다 2분을 단축하며 우승고지를 탈환한 그는 2위 보다 2분 가량 앞서 결승선을 지나쳤다.

여자 하프코스에서는 류승화(37·천안)씨가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지난해 처음 3·1 마라톤 대회에 참가, 1위 시상대에 섰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1시간24분3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이뤘다.

남자 하프코스에서는 김보건(27·전주)씨가 1시간12분28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3·1 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13년 대회에서 남자 10km 부분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었다.

100번째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이도 있었다.

2008년 3·1 마라톤에서 처음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던 주성남(45·광주 광산구)씨는 이번 대회에서 100회 풀코스 완주를 이루며 축하세례를 받았다.

주씨는 “의미 있는 대회, 의미 있는 날이라 더 이를 악물고 뛰었다. 쌀쌀하기는 했지만 뛰기에 좋았다. 기분 좋게,



풀코스 남자 부문 우승자 김수용씨가 42.195km를 2시간 32분31초에 질주,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좋은 기록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고 자신의 100회 풀코스 완주를 자축했다.

한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도심의 레이스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찾아 봄날의 레이스를 즐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재용 총괄심판이 바라본

3·1절 전국 마라톤



“광주 역사 담긴 코스…수준 높은 대회”

“50주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온 호남 마라톤의 저력과 전국 마라토너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광주 육상의 산증인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는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심판 총괄을 맡아 마라톤 대축제의 현장에 섰다.

올해로 대회가 50주년을 맞은 만큼 육상인 심 전무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심 전무는 “3·1 마라톤 대회는 호남의 마라톤을 넘어 한국 마라톤의 역사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룡, LA 올림픽 김원식 등이 3·1 마라톤 출신이다”며 “엘리트 선수들의 산실이었고, 지금은 생활 체육인들의 수준 높은 질주가 펼쳐지는 무대로 5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 육상인들은 물론 외부에서 찾은 마라토너들에게도 특별한 무대이자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옛 선배들이 달렸던 도심의 코스는 3·1

마라톤 대회의 가장 큰 매력이다.

“육상 선배들이 옛 전남도청(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해 도심을 지나 푸른길을 달렸다. 역사가 있는 길이다. 코스 자체도 어느 대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며 “또 시즌을 시작하는 전통 있는 대회라 전국의 실력자들이 매년 이맘 때 광주를 찾고 있다. 올해도 수준 높은 질주가 펼쳐지는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우려와 달리 눈과 비가 비껴가면서 축제의 현장이 더 빛났다.

심 전무는 “눈에보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관망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기는 했지만 뛰기에는 좋은 조건이었다. 특별한 사고나 부상 없이 50주년을 맞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전국각지에서 광주를 찾아준 마라토너들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